지상백고좌

동사섭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

“우린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습니다”



용타 스님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4세에 청화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승려 신분으로 10여 년의 교직 생활 후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1980년 불교의 근본가르침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동사섭 프로그램을 계발해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 귀신사(歸信寺) 회주, (재)행복마을 회주, 한국명상지도자협의회 원로로 있다.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10분 해탈〉〈공(空)〉〈행복노트〉 등이 있다.

함양 천령산 자락에 위치한 동사섭 행복마을로 가는 길엔 자귀나무가 연분홍빛 꽃을 무겁게 달고 있다. 우산 모양의 자귀꽃은 마을 어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행복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자극한다.

동사섭 행복마을은 1980년 용타 스님이 주도하여 강진 무위사에서 T그룹 워크샵인 엔카운터 모임에서 출발했다. 2007년 경남 함양에 터를 잡고 동사섭문화센터를 개원하였다. 동사섭 행복마을은 올해로 43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명상수련센터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동사섭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영성수련회를 지도했고, 지금까지 3만 여명의 수련생이 배출되었다. 수많은 사람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있다.

용타 스님에게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를 여쭈었다. 그러자 스님은 “해탈로 넘치고 있다”고 했다.

“요새는 행복과 해탈로 넘치고 있어요. 단, 여기서 해탈 개념은 달마불교의 해탈 개념입니다. 지금여기 걸림 없는 자유, 이 마음 이대로 부처요 열반이라는 즉심즉불 즉심열반(即心即佛 即心涅槃) 등이 달마 대사가 주창한 불교입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져야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은 석존 이래 가장 전통적인 가르침이지만, 달마 대사는 조사선(祖師禪)이라는 새로운 불교의 문을 여셨지요. 탐진치를 다 해결한 다음에 부처가 된다는 이론에 제동을 건 격이었지요.”

그러면서 용타 스님은 말을 이었다.

“저는 45살 무렵부터 조사선 법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대로가 바로 부처요, 열반이라는 조사선 가르침이 온전하게 자가 수긍이 될 때까지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진치(貪嗔痴) 삼독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야 부처이자 열반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명상 중에 즉심즉불(即心即佛)과 즉심열반(即心涅槃)이 납득, 수긍 돼버렸어요. 농담이지만 나이 팔십을 넘기고 볼 일입니다.”

‘동사섭’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사섭법(四攝法)중 하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섭인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다 아우르는 개념”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은 이것저것이 관계적으로 엮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그 무엇을 내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이 되어버려요.”

용타 스님은 전남대 철학과 3학년 때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출가의 계기를 여쭈었더니 ‘같은 과 친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에 이끌린 것’이라 한다. 그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졌다. 2~3개월 고심 끝에 꿈속에서 프리즘을 없애라는

불행은 행복하단 사실 외면한 것
인식 부재 인해 스스로 불행해져
행복으로 ‘코드’ 돌리는 게 ‘수행’

동사섭 모든 수련 체계를 위해서
정체 등 ‘삶의 5대 원리’ 설정해
“주인정신 갖고 마음 관리 잘해
주변과 화합하고 바른 행동하라”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 뜻을 잡아버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대로 출가의 길로 나아갔다.

“은사 청화 스님의 가르침이라면 ‘해오(解悟)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증오(證悟)주의로 나아 감’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오(解悟)란 이치를 이해하는 깨달음을 말하고 증오(證悟)란 삼매를 통하여 증득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은사스님의 스승이신 금타 대화상이 288자로 이루어진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이라는 경전을 ‘해오하고 증오하라’고 평생 가르쳤지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보리방편문〉과의 만남이라고 수없이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용타 스님은 “오늘 인터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윤정 보살이 도통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큰스님들 인터뷰를 했다면 준비가 충분히 되었겠네요. 도를 통하는데 세월이 걸린다면 문제지만 5분, 10분이면 해탈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해버리시지요. 쉬운 예로 원효 스님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깨우쳤어요. 이처럼 해오주의 깨달음은 닦음의 시간이 필요 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10분 만에 해탈된다는 스님의 말에 더럭 겁부터 났다. 기색을 눈치챘는지 용타 스님은 웃으며 말을 더했다. “부처는 선언해 버려야 할 개념이지 갈고 닦고 준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고 보면 부처 아님이 없다고 했으니 스스로가 부처임을 받아들여서 ‘나는 활불이다’라고 선언하고, 활불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지요.”

용타 스님은 중생의 의미를 번뇌를 다 끊어내지 못한 부처로 이해해야 하는데, 중생과 번뇌를 동일시해 버리는 사견이 형성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가 인간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불교에 있다. ‘이 마음 이대로 부처요, 두두물물이 부처요, 온 법계에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금구(金口)들이 무수히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법설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용타 스님은 동사섭의 모든 수련 체계를 위해 삶의 5대 원리를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덕목으로 정리했다.

5대 원리 가운데 첫 번째인 ‘정체’는 나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인데, 먼저 주인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은 주인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인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주변을 살피게 되고, 자기 주변이 보다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노력합니다.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면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요. 좀더 나아가서 초월적 자아관을 가지게 되면 걸림없는 마음으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행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